

시축단  
도건집

---

성북동

**도시건축집단 성북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위해 결성한 건축가집단입니다. 성북동에 자리잡고,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 역사 및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도시와 지역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고, 건축 및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공공성 실현과 건축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여러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bac**(group**urb**anastic**arch**itecture) **Seongbukdong** is a group of architects that have been formed based on the area to think about the communality of architecture and the social role of architect. Located in Seongbuk-dong, it is observing and recording with interest the culture, art, history and diverse aspects of life that are happening around the region, and using it as a base, is taking a broader look at the rapidly changing city and the region, conducting various experiments to realize the communality of the area and to present a new direction of architecture through collaboration with various fields.



**권웅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조성릉도시건축  
 건축사(19001호)  
 서울시 공공건축가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대표

**Kwon woong-kyu**

Sungkyunkwan University, Bachelor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 Degree of Architecture  
 ubac/johsungyong architect office (2006-2015)  
 Registered Architect, Korea (KIRA,19001)  
 Public Architec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2022)  
 Adjunct professor of Kwangwoon University (2019- )  
 Principal, ubac/seongbukdong (2015- )

**송미선** Song mi-seon    **류지혜** Ryu ji-hye    **최규순** Choi kyu-soon

past members/ Lee jeong-hwan, Lee hyun-sik, Kim geo-chang, Lee hwan-ki, Kim yong-jae, Ryu min-ah collaboraton/ Kim kyeong-wan, Kim hee-jung, Park seong-cheol, Eoh hye-ryeong, Ha deok-hyun, Kang sang-young, Lee myung-seop, Kim ji-hyun, Kim young-bae, Hong jin-ah, Hong jang-o intern-ship / Kim joo-hyun, Kim hee-kyung, Kim yeon-soo, Park sun-jin, Cho chae-hee, Lim ji-hyun, Kim jun-do, Han ji-hoon, Yang hyun-chul, Lee hyun-goo, kim you-jee, Lee seok-young, Lee hye-won, Yoon seong-min, Park young-seo, Heo ji-won

## 2006-2015 조성릉도시건축

### 2015-현재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집단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 ○ 주거시설

- 남해 상주리펜션 신축공사
- 효창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구례예술인마을 주택+음악당 신축공사
- 가회동 O씨 주택 리모델링
- 자곡동 M씨 주택 신축공사
- 연희동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 성북동 P씨 주택 리모델링
- 성북동 북정마을 리모델링
- 아치울 연립주택 신축공사
- 분당 이매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 미아동 상가주택 리모델링

#### ○ 업무/상업/문화시설

- 연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마포타워 라운지, 외부공간 리모델링
- 상왕십리 카페 리모델링
- 연희동 아이웹 사옥 신축공사
- 강남 힐락의원 리모델링
- 강릉 강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덕은지구 상가주택 신축공사
- 대구 골든시스 사옥 신축공사
- 공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동소문동 상가주택 신축공사

#### ○ 공공프로젝트

-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성북구청)
- 정릉터널 앞 교통광장 기본구상 (서울시 성북구청)
-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리모델링 (서울시 성북구청)
-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제안공모 2nd prize  
(서울시 한강사업소)
- 무중력지대 성북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성북구청)
- 성북예술동 유희공간 재생프로젝트 성북도원,  
성북예술가압장 (성북문화재단)
- 제주비엔날레 2017 성북아트커먼스 파빌리온 설치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 삼척수련원 지명설계경기 1st prize  
(서울시 서북구청)
- 성북동 골목길 환경개선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서울시 성북구청)

-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_ 중림1길  
(서울시)
- 영릉 시설관리동 정비 기획 및 설계용역  
(국가유산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계남공원, 용왕산공원 야외무대 정비사업  
(서울시 양천구청)
- 양양 기사문학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공모 1st prize  
(한국어촌어항공단)
- 서울청년센터 성북오랑 설계공모 1st prize  
(서울시 성북구청)
- 본각사 리모델링 (서울시 양천구청)
- 의정부 고산 아이돌봄 클러스터 설계공모 3rd prize  
(의정부시, LH)
- 서울청년 기지개센터 리모델링 (서울시, 기지개센터)
- 국립 조선왕조실록박물관 리모델링  
(국가유산청 조선왕조실록박물관)
- 국립삼봉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산림청)
- 청년살이발전소 리모델링 (서울시 성북구청)

#### ○ 연구/출판/전시

-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등재 도면제작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건축의 소멸0 보안어관에서 소록도를 생각하다”展  
전시공간제작 및 설치 (조성릉도시건축, 수류산방)
- 성북도큐멘트 새석관시장 아카이브 전시  
(성북문화재단)
- 세유관순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이화학원)
- 한국의 서원 조감도 및 건축도면집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이웃집예술가 모두의 집 참여작가  
(성북문화재단)
- 저층주거지 아카이브 참여작가 (성북문화재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글로벌 기숙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 (KIST)
- 국립 조선왕조실록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구상  
(국가유산청 고궁박물관)
- 은평구 이호철라키비움 전시 기본구상  
(서울시 은평구청)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표지석 디자인연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국립 조선왕조실록박물관 디지털외사고 건축기획  
(국가유산청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 대구 골든시스 사옥 신축공사

Daegu Goldensys office project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울암동 안심뉴타운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482.90m<sup>2</sup> (142.09py)

건축면적 284.20m<sup>2</sup> (85.98py)

연면적 1,357.82m<sup>2</sup> (410.76py)

건폐율 58.85%

용적률 263.29%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점토벽돌 치장쌓기

도시건축집단 성복동

사진/ 김재경



안심뉴타운. 한때 연탄공장과 시멘트공장들이 밤낮으로 불을 밝히던 안심연료단지가 있었던 이곳은, 과거 대구시의 건설경기 붐과 눈부신 경제 성장에 있어 큰 축을 담당했던 곳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연탄 산업의 쇠퇴와 대구 시가지의 점진적 확장으로 흉물스런 민원대상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잦은 환경오염 이슈와 함께 슬럼화되다시피 하던 안심연료단지를 이후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하게 되면서 안심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되게 되었다.

2022년 늦봄, 그러한 안심뉴타운의 서쪽 끝, 공원과 맞닿은 부지에 대구를 연고로 하는 IT 기업의 신사옥 설계를 의뢰받았다. 멀리 팔공산과 초례산을 풍경으로 두르고, 가까이서는 뉴타운의 부산스러움에서 살짝 비켜 있을 수 있는 공원이 손끝에 닿는 곳. 여기에 저층부에는 임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회의실과 교육실을 갖춘 업무시설을 계획하는 내용이였다. 첫 미팅을 겸해 기존 사옥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따뜻한 사내 분위기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건축주 내외와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가족적인 따뜻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옮겨 잘 담아낼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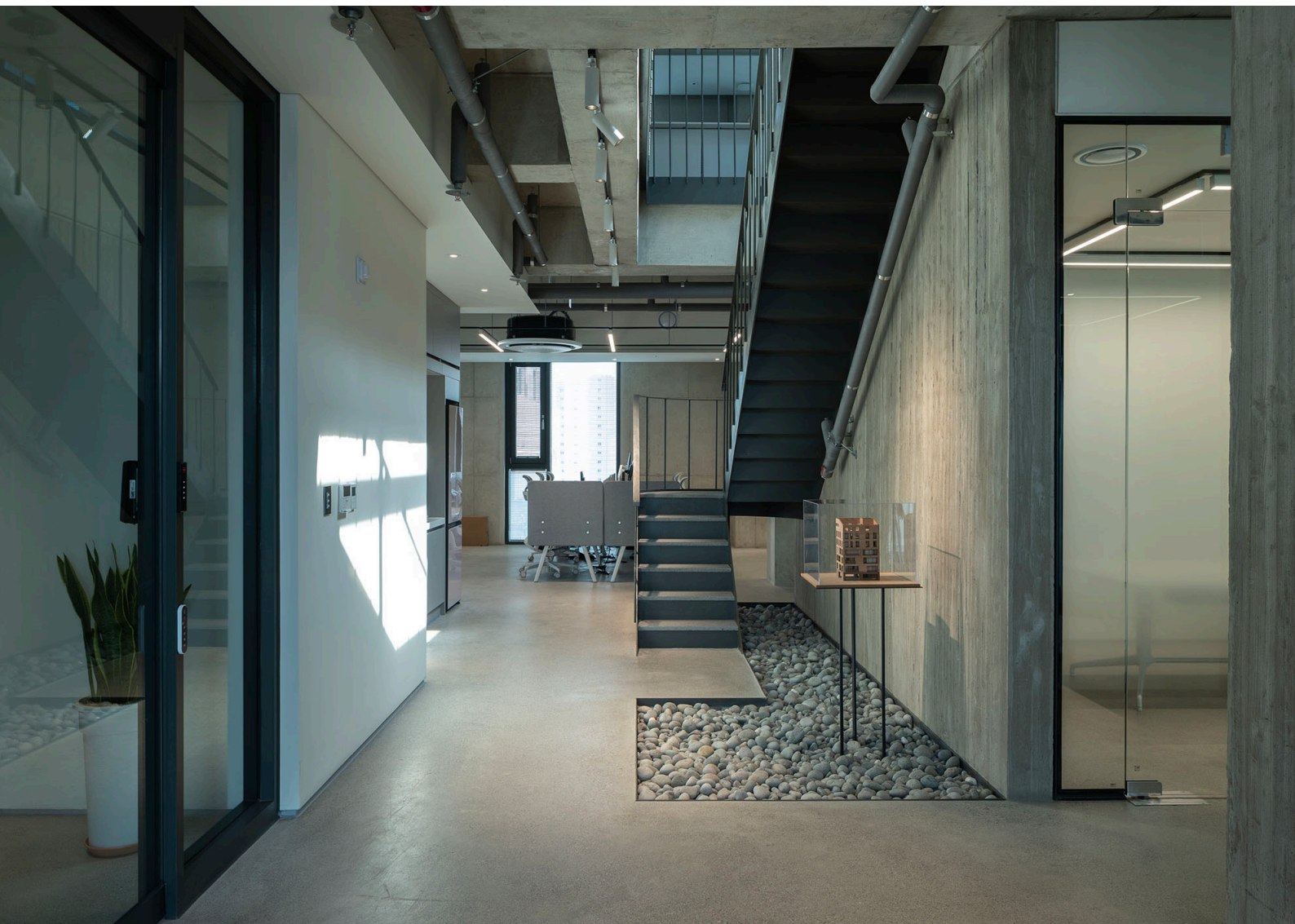




시작은 벽돌이었다. IT기업이니까 방화벽, 방화벽이니까 벽돌 건물이 어떠냐는 우스갯소리로 시작되었지만, 경량판넬로 가볍게 지어지고 있는 주변 건물들과 달리, 벽돌은 조금은 고전적인 느낌의 재료, 시간성을 입었을 때에도 곱게 나이 들고 주름살이 예쁘게 질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입면 또한 형태가 강하게 드러나기보다는 벽돌 건축의 비례와 균형을 통해 단정함 속에서도 리듬감이 숨어 있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층 필로티 주차장은 자칫 왜소해 보일 수 있는 기둥을 벽기둥으로 만들어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였고, 2, 3층의 임대공간은 발코니를 충분히 계획하여 남향과 함께 공원으로의 개방감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4층의 회의실과 교육실 또한 발코니를 길게 두어 풍부한 외부공간을 즐기면서 동시에 서향 빛을 가릴 수 있는 깊은 처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된 업무공간인 5, 6층은 가운데 중정을 통해 자칫 어두울 수 있는 실내를 자연 빛으로 환하게 채우고 내부 금속계단을 통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옥상층까지 높게 쌓아올린 벽돌 파라펫은 멀리 팔공산 능선을 의식해서 끝을 살짝 기울였으며 6층 중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외부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처음 계획 부지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황량한 주변 풍경은 얼마 후 다시 방문하였을 때,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복닥거림으로 변해 있었다. 웬스가 돌리지는가 싶더니 이내 철골 기둥이 세워지고, 가벼운 금속패널이 후루룩 매달리더니 금세 하나둘 날랜 건축물들이 들어섰다. 마치 급조되고 있는 듯한 도시. 사람 냄새나는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당연하다는 듯 우선시되는 곳처럼 느껴졌다. 뉴타운이라는 한계 때문일지. 무표정한 건물들이 속도전처럼 하나둘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획한 건물이 다른 이웃 건물들이 기댈 수 있는 풍경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건물이 시작이 되어 안심뉴타운만의 시간이 축적될 수 있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자체적인 분위기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연희동 아임웹사옥 신축공사

Yeonhui-dong I'm web office project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용도 업무시설, 전시장

대지면적 222.00m<sup>2</sup> (67.16py)

건축면적 110.63m<sup>2</sup> (33.47py)

연면적 379.70m<sup>2</sup> (111.11py)

건폐율 49.83%

용적률 98.27%

규모 지상2층 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점토벽돌, 럭스틸, 내후성철판, 노출콘크리트

도시건축집단 성복동

사진/ 김재경



2020년 여름에 들어설 무렵, 연희동 궁산을 뒤로 하는 구릉지 끝자락 동네에 기존 사옥과 연계하여 업무 및 전시공간으로 사용할 IT기업의 별관에 대한 설계를 의뢰받았다. 전용주거지역의 엄격한 층수와 높이제한, 정복일조의 규제는 다행히도 옹기종기 비슷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앞으로는 흥대의 아름다운 도시풍경이, 뒤로는 궁산의 풍부한 녹지에 기댈 수 있는 매력적인 동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산복도로와 앞 도로의 7m 레벨 차이를 적극 활용하고, 기존 주택가 풍경과 어울리면서도, 궁산의 녹지를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의 큰 방향으로 삼고 설계에 임하였다.

기존 사옥의 지붕 물매 흐름을 받아 구관과 신관이 함께 어울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아래 도로에서 진입하는 지하층이 산복도로에서의 2층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내부동선을 계획하였다. 내후성 철판으로 만든 입면의 루버들은 이동 동선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열림과 닫힘의 변화가 생기도록 하여 다채로운 입면의 변화와 함께 인근 주택가와의 서로 불편하지 않은 공존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사옥의 불편했던 수직 연결동선을 개선하고 별관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오렌지 색 연결브릿지를 계획하여, 다양한 레벨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마당에 있던 노후화된 라운지를 연결브릿지와 버무려 새롭게 정비하여 양쪽 마당을 골고루, 넉넉하게 즐기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하여, 세부적인 인테리어를 미술작가와 컬레버로 진행하였는데,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매순간 꽤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돌이켜보면 건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그로 인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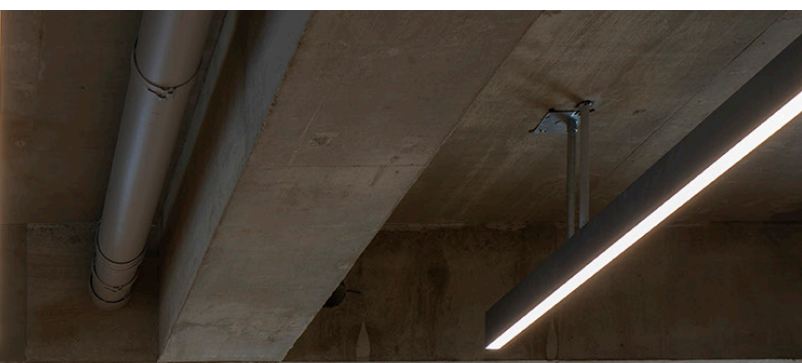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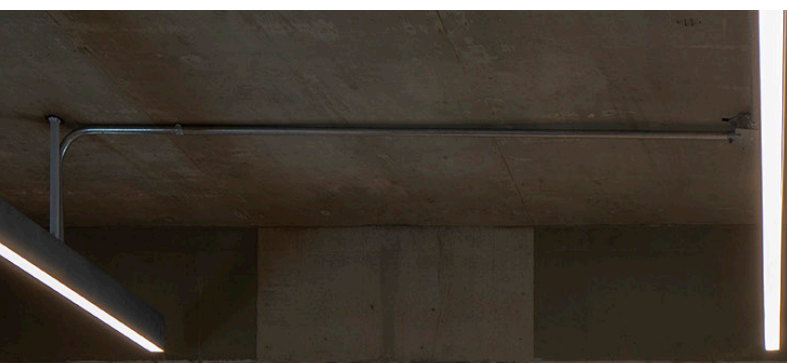












# 가회동 0씨 주택 리모델링

gahoe-dong residence remodeling

위치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99.20m<sup>2</sup> (30.01py)  
건축면적 55.11m<sup>2</sup> (16.67py)  
연면적 122.81m<sup>2</sup> (33.29py)

진폐율 55.55%  
용적률 110.94%

규모 지상2층  
구조 연와조, 철골보강  
주요재료 T-flex외단열, 라왕합판 위 오일스테인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김재경



2019년의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북악산이 손에 닿을 만큼 지척에 걸려 있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가회동의 한옥들 사이에 위치한 낡은 2층 주택을 만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준공되었다는 이 건물은 여러 겹 덧대어진 마감들을 벗겨내면 낼수록 감히 이력을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세월의 나이테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중첩된 기억들’. 새로이 이 집에 머물게 될 가족들이 시간의 기억이 쌓여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잘 느끼면서 새로운 시간을 더해갈 수 있도록 계획의 방향을 잡았다.

철거를 통해 확인된 취약한 부분의 구조와 단열을 보강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사면의 창호를 새로 달았다. 메인부엌인 동시에 열린 성격으로 이용될 1층 영역은 활용성이 높은 콘크리트 폴리싱 바닥마감을 적용하였고, 내부 벽체와 천장은 최소한의 마감으로 시간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흔적들을 요소요소에 남겨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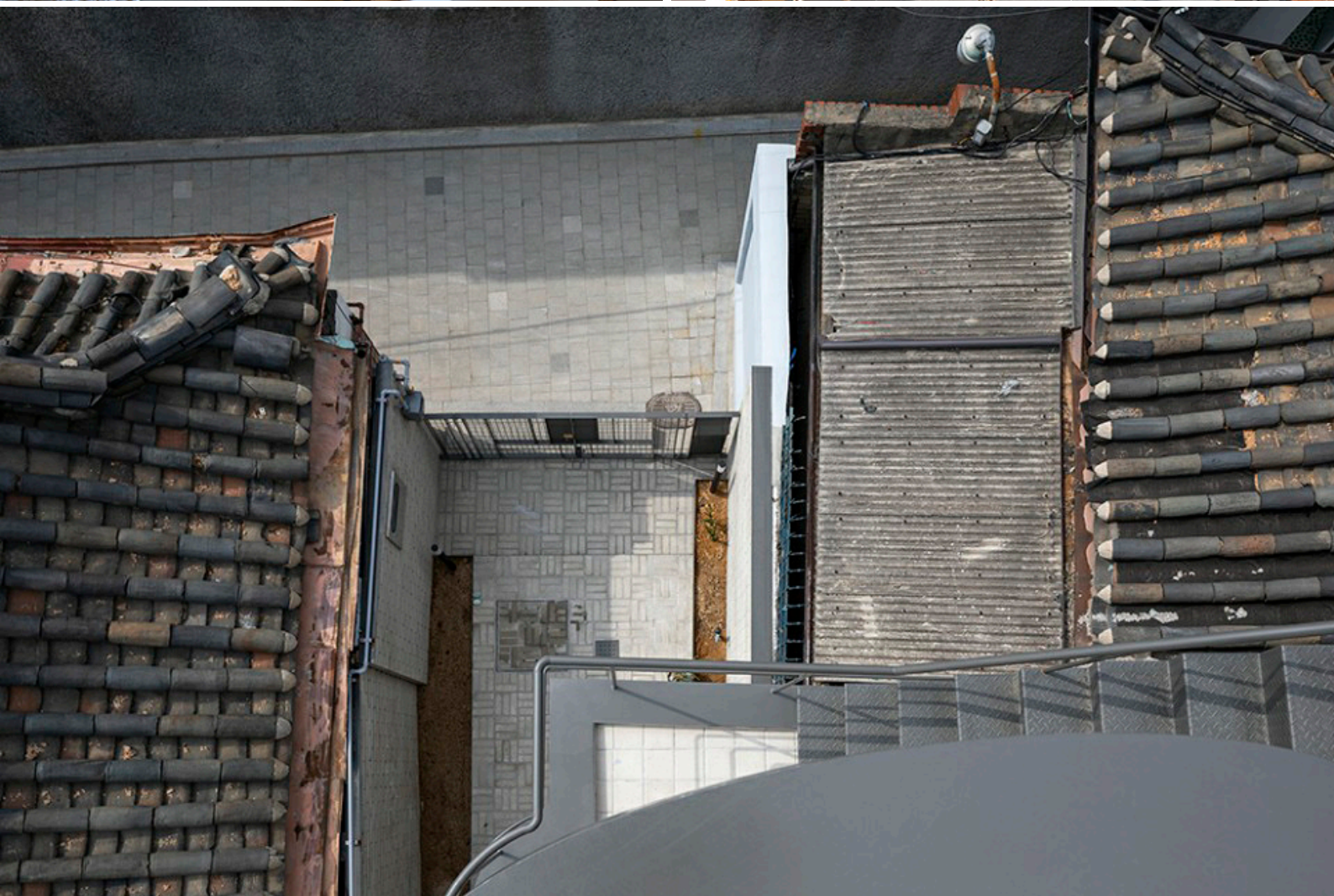
1층과 2층을 연결하게 될 최소한의 계단은 금속과 목재를 이용하여 따뜻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장서가 소장될 수 있는 서가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주 생활공간이 될 2층은 좁지만 각각의 공간들이 이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타일을 이용하여 통일된 바닥마감을 적용하였으며, 내부 가구 또한 라왕합판의 선 고운 무늬를 활용하여 하나의 재료로 쓰임에 맞게 각기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골목에서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마당은 시멘트벽돌로 담장과 바닥을 마감하였으며, 투시형의 낮은 대문을 두어 최소한의 영역성을 가지는 대신 좁지만 깊은 마당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구례예술인마을 주택 + 음악당

gurye residence + music hall

위치 전남 구례군 온당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510.00m<sup>2</sup> (154.28py)  
건축면적 129.68m<sup>2</sup> (39.23py)  
연면적 196.34m<sup>2</sup> (59.40p)

건폐율 25.43%  
용적률 38.50%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점토벽돌, 콘크리트블록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김제경



산수유 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녘을 지나면, 작은 저수지를 앞으로 하고 지리산 간미봉에 기대어 앉은 자그마한 마을이 나타난다. 회화와 조각을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구례 예술인마을. 그러한 마을에 처음으로 음악가의 집이 들어서게 되었다.

바이올리니스트 가족들의 별서인 동시에 실내악을 연습하고 소규모 공연을 겸할 수 있는 작은 음악당을 의뢰받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별서공간과 음악당이라는 조금은 개방된 성격의 공간을 함께 두기 위해 공용현관을 기준으로 서로 교차하여 배치하고 층을 나누어 구분 짓는 방법을 택하였다.

음악당은 일부 바닥을 낮추어 자연스런 객석을 만들고 천장을 높여 작지만 깊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낮고 열린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은 음악당의 객석으로도 이용되면서 동시에 가족들이 주변 자연환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별서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음악당 층고를 높임으로써 만들어진 2층 테크마당은 가족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주변 자연환경을 넉넉히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리를 담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주변 풍경으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공간. 마을의 초입에, 어찌면 첫인상이 될 수도 있는 곳에 들어서는 이 건물이 그 곳 자연에 가깝게 닮아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 연남동 근린생활시설

yeonnam retail complex

위치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70.35m<sup>2</sup> (4필지)  
건축면적 414.15m<sup>2</sup>  
연면적 138.61m<sup>2</sup>

건폐율 51.27%  
용적률 153.19%

규모 지상3~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노출콘크리트, 점토벽돌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김제경



경의선 철길이 사라지고 숲길이 된 이곳에는 지금도 그 시절 단층주택들이 빼곡히 남아 있다. 6, 70년대에 형성된 이 연남동 끝자락 동네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오래된 동네이다.

이웃한 4개의 작은 필지에 건축주가 각기 다른 4개의 상가건물을 의뢰받았다. 이에 작은 필지를 합필하여 거대한 하나가 되는 대신, 오랜 도시조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각각의 소규모 건물로 계획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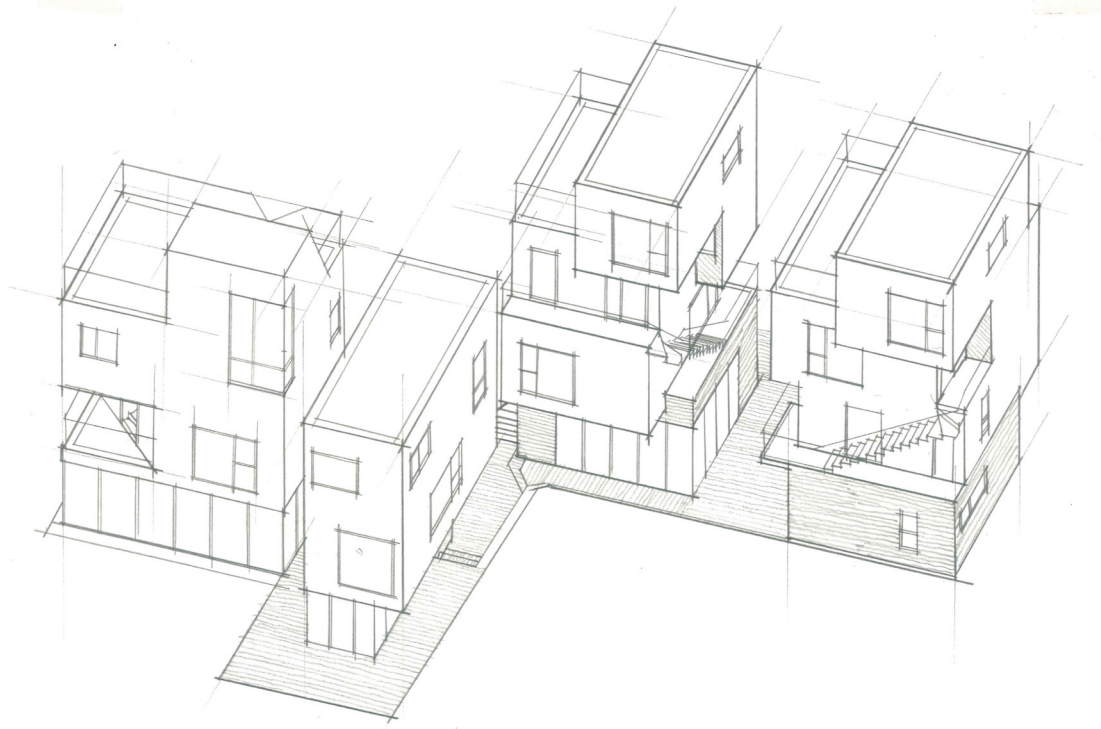
오래된 동네인 만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래 되고, 골목길에 닿아있는 오래된 집들도 자연스럽게. 실핏줄처럼 사방으로 연결된 오랜 골목길에는 아직도 빨래를 내어 널고, 가을이 되면 고추를 말리는 모습이 심심찮게 펼쳐진다. 골목길은 여전히 공공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퇴적되고 쌓여가는 기억과 시간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곳에 새롭게 들어서게 될 건물들이 기존의 골목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상상하였다. 각 건물들의 법정 이격거리들을 모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어놓았고 오래된 골목길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도록 하였다. 꽉 막힌 계단실 대신 외부로 열린 계단과 복도를 통해 기존 골목길이 건물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난 골목길의 가운데에는 작은 마당이 생겨났다. 그 곳을 통해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져 “이웃가게”라는 개념이 자연스레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 아치울 연립주택

achiul housing complex

위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마을  
용도 연립주택 (8세대)

대지면적 1,230.00m<sup>2</sup> (372.08py)  
건축면적 576.19m<sup>2</sup> (174.30py)  
연면적 2,976.72m<sup>2</sup> (900.46py)

건폐율 46.84%  
용적률 147.45%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라임스톤, 노출콘크리트, 스페니쉬기와



도시건축집단 성복동



# 자곡동 M씨 주택

jagok-dong residence

위치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쟁골마을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98.00m<sup>2</sup> (90.15py)  
건축면적 118.82m<sup>2</sup> (35.95py)  
연면적 628.71m<sup>2</sup> (190.20py)

건폐율 39.87%  
용적률 99.90%

규모 지상3층 지하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점토벽돌, 콘크리트브릭, IPE



도시건축집단 성복동







## 상왕십리 카페 리모델링

sangwangsipri-dong cafe remodeling

위치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용도 근린생활시설(카페)

계획면적 66.18m<sup>2</sup> (20.00py)

규모 지상3층 중 2층 일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재료 금속프레임, 노출면 미장마감, 라왕합판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이명섭





COCKTAIL

COCKTAIL





COMENG'S



# 강남 힐락의원 리모델링

gahoe-dong residence remodeling

위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용도 근린생활시설(개인 내과의원)

계획면적 139.67m2 (42.25py)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중 3층  
구조 철골조  
주요재료 금속프레임, 라왕합판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김재경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북예술동 재생프로젝트

## 성북도원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 Seongbuk Downon, renovation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면적 143.48m<sup>2</sup>

연면적 143.48m<sup>2</sup>

규모 지상1층

구조 기존 철근콘크리트+경량철골조

외장재료 시멘트벽돌 위 표면발수제

도시건축집단 성북동+공공작업실

사진/ 김제경, 이정환



오랫동안 비어져 흉물스러웠던 무허가 건물을 서울건축도시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을 의뢰 받았다. 기존 콘크리트 건물에 임의로 덧대어 무단 확장한 건물과 흉가나 다름없는 목조 헛간을 새로운 방식과 접근을 통해 전시공간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계획의 방향은 재활용 즉, 원래의 공간과 재료를 재사용, 활용(re-cycle)하여 바꾸어 쓰는, 단순한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꿈마루에서 경험하였던 리해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개념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였다.

처음 만난 대상지의 느낌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혼잡함의 공존이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제된 풍경장치를 통해 조금은 아늑하고 편안한, 새로운 풍경을 만들기로 하였다. 기존 건물에 덧달아진 부분은 과감히 철거하고 전시기능의 활용성을 위해 그 면적만큼 일부 증축을 진행하였다. 경제성과 함께 재료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시멘트 벽돌을 활용하여 최대한 단순한 매스의 형태를 연출하고 내·외부를 가로지르는 벽을 통해 공간의 확장과 영역성을 가지는 간결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헛간이 있던 곳에도 벽에 기대 최소한의 장치를 이용하여 옥외전시공간을 조성하였다.

자연스러운 풍경장치와 자박자박 쇠석 밟는 소리로 가득한 공간. 비록 공간의 수명이 제한되어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더운 여름 땀흘린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북예술동 재생프로젝트

## 성북예술가압장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eongbuk Art Pumping Station, renovation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면적 211.74m<sup>2</sup>

연면적 423.48m<sup>2</sup>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요재료 공사용 가설자재, 마닐라로프, 라왕합판  
암막커튼, 점토블럭, 스테인레스 조명틀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성북수도가압장은 1987년 성북구 일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된 이래, 2000년대에 들어 운영이 중단되면서 도심 내 흉물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 일대가 연극센터 신축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철거될 운명에 놓인 시한부 공간이 되었다. 그러한 버려진 수도가압장을 비록 한시적이지만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의뢰받았다.

기존 가압장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공감각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였다. 우선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졌던 주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고, 쓰레기가 쌓여있던 후미진 공간을 진입마당으로 새로이 조성하였다. 불필요한 내부벽체 등은 과감히 철거하여 공간이용율을 높였으며, 장차 소멸될 상황을 고려해 공간 자체가 기억이자 전시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사용성을 위해 가변적 개념의 암막커튼을 두르고, 직접 조명기기를 제작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간을 빛으로 채우는 색다른 분위기 연출을 꾀하였다.

2017년 서울건축도시비엔날레 오픈에 맞추어 “성북의 건축가들이 모여 성.북.을 이야기하다(성북건축가연대M)”와 “재생유랑(아트플러그)”을 마수걸이 전시로 채웠다. 거칠고 생경한 풍경에 대한 우리가 전시공간으로서의 묘한 매력으로 치환되어 관람객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일은 지금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 효창동 세가구주택

hyochang-dong multi-family house

위치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용도 다가구주택

대지면적 114.3m<sup>2</sup>

건축면적 68.21m<sup>2</sup>

연면적 166.30m<sup>2</sup>

건폐율 59.68%

용적률 145.49%

규모 지상4층+다락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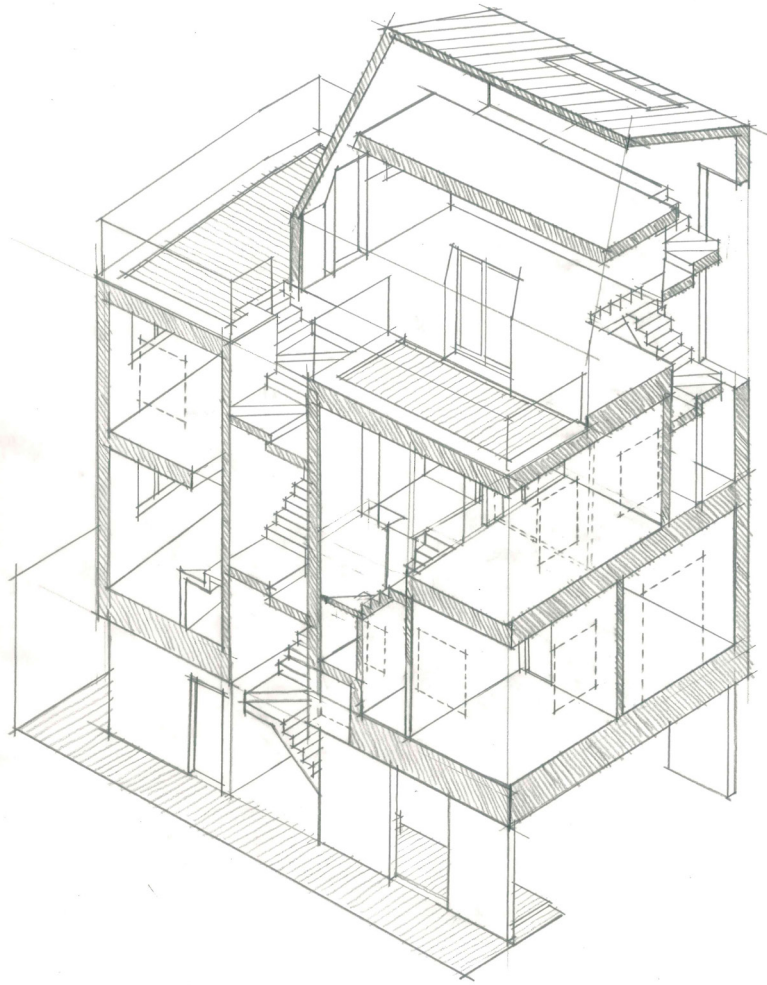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적삼목사이딩, 스타코 외단열시스템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이정환





한 달음에 효창공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마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 가정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의뢰받았다. 비슷한 또래의 남매들을 둔 세 가정은 자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식세대들이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뛰어놀며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좁은 필지에 일조권사선제한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제약마저 따르는 상황은 마치 협소주택 3채를 동시에 계획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안겨주었다. 좋은 향과 일조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각각의 내부계단을 가진 복층주택 세 개를 조합하여 하나의 건물로 구성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세 가정인만큼 각기 다른 요구조건과 취향들을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각 세대 유닛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서로의 취향에 맞는 계획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다른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계에 맞물려 건축행정을 두 구청에서 동시에 협의하는 기이한 상황은 그저 덤으로 따라왔다.

완공된 후 노을 지는 효창공원을 내려다보며 기대선 옥상데크에서의 감흥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세 가정이 그곳에서 다시금 어우러져 오순도순 열심히 추억을 쌓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 또한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 남해 상주리 IBERIS

namhae sangjuri, IBERIS

위치 경남 남해군 상주리

용도 다가구주택

대지면적 537.00m<sup>2</sup>

건축면적 169.46m<sup>2</sup>

연면적 228.86m<sup>2</sup>

건폐율 31.56%

용적률 42.62%

규모 지상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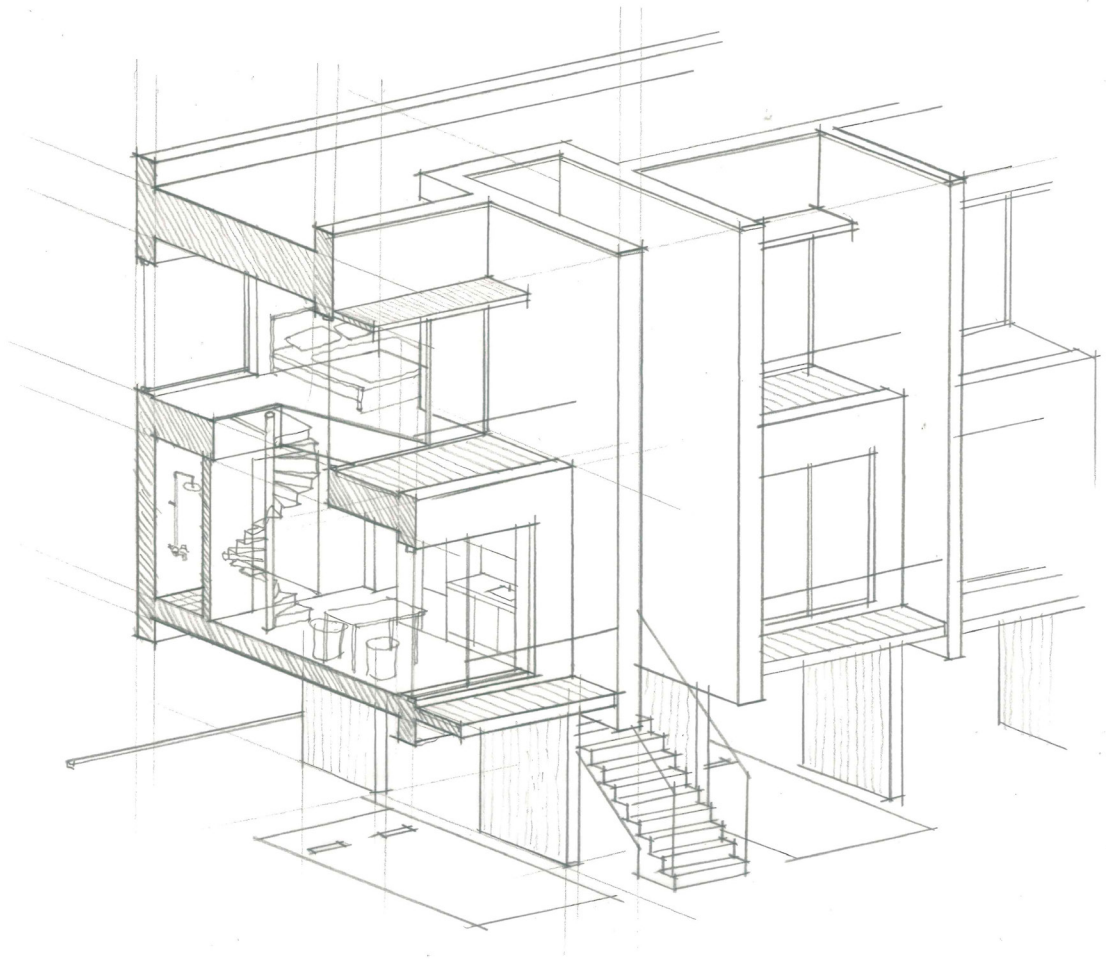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스타코 외단열시스템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박준규





멀리 금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고운 은모래 백사장을 앞으로 끼고 앉은 아늑한 마을. 오랜 어촌풍경에 더해져 형형 색색의 민박집들이 앞뒤로 총총 들어서 있는 마을. 이곳 남해 상주리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사계절동안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을 의뢰받았다.

대상지에서는 사실 바다를 직접 조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레벨을 달리하면 빼꼼히 드러나는 은모래 해변과 함께, 멀리 금산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등 더 많은 풍경들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로 객실을 복층으로 구성하여 높이에 따라 각기 다른 풍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하였다. 각 객실 바로 아래에 있는 주차장은 차량이용객들의 편의의 함께 바베큐를 비롯한 활동마당에 가까이 접하게 하여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 하였다. 좌우로 연립한 객실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야외 활동이 겹쳐지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호 조합으로 구성된 객실은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응하여 옆 객실로도 손쉽게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베리스(iberis)는 흔히 눈꽃이라고도 불리우며 우아함, 깨끗함, 끌어당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상주리 어촌 풍경 속에 눈처럼 하얗게 들어선 이베리스에 다녀간 방문객들이 남해의 좋은 추억만을 간직하기를 희망하는 건축주 부부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 더 없이 어울리게 느껴진다.





#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개수공사

Kimchungup house of architectural culture

위치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67.00m<sup>2</sup>

건축면적 139.57m<sup>2</sup>

연면적 283.50m<sup>2</sup>

건폐율 38.03%

용적률 145.49%

규모 지상2층 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화강석, 점토벽돌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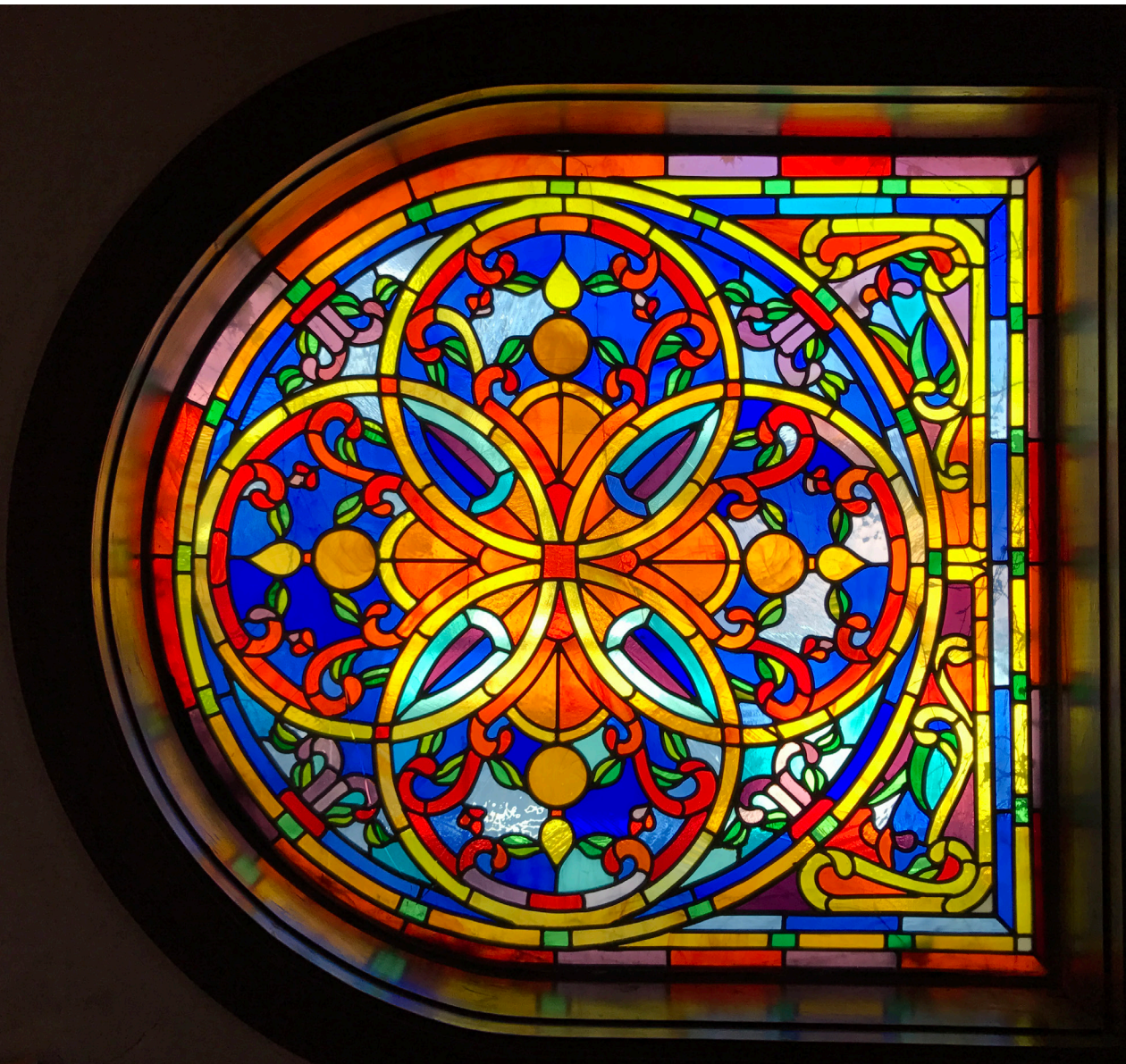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이정환



재개발이 해제된 장위동 일대는 들떠 있었던 마음이 가라앉는 만큼이나 마을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 또한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었다.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여러 마을활동가들과 행정조직들이 지역을 기억하고 보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급변하는 마을의 변화 앞에서 무색해질 따름이었다. 그런 장위동에 70년대 동방주택 단지의 흔적을 간직하면서도 80년대 김종업건축연구소에 의해 전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던 주택을, 다행히 건물의 가치를 알아본 건물주가 성북구청에 인계하게 되었고, 몇 차례 자문이 있는 후에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80년대 김종업건축가의 건축양식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매단지는 흥미로운 작업이 진행되었다. 김종업건축가의 직접 관여에 대한 확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지만, 눈과 손이 꼼꼼한 시공사 덕분에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롯한 내부공간은 최대한 기존 자재를 보수하여 재사용하였으며, 새로 교체한 부분도 원형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였다. 외부 공간 또한 당시의 조경양식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여, 덧심어진 수목을 걷어내 최대한 초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주차장으로 쓰였던 옥외마당은 담장을 헐어내어 진입마당으로서 보다 개방적인 성격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완공된 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문화예술공간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또한 즐거운 기쁨이다.





## 정릉천변 산책로 편의시설

convenient facility of jeongneungcheon

위치 정릉천 경국사 주변 수변 산책로

용도 수변계단, 문화지도, 휴게의자

주요재료 계단/ 경량 철골 위 우레탄도장+화강석 잔다듬

문화지도/ 철판 레이저가공 위 분체도장

+아크릴 레이저가공

휴게의자/ 철판 절곡 위 분체도장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이정환



북한산에서 발원한 정릉천은 서울의 동남쪽으로 흘러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서울의 대표적 하천 중 하나이다. 풍부한 유량과 더불어 일대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더불어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과 활동거점이 되는 등 풍부한 인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한 정릉천에 수변공간이 넓고 미관상 좋지 않아 타일아트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주민공모사업이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그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작 주민들이 넓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은 오랜 시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하천 옹벽의 이끼들이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타일아트보다 훨씬 더 근사한 조경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방문과 주민인터뷰를 통해 정릉천이 긴 산책로에 비해 접근로와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주관부서와 주민대표를 설득한 끝에 다행히 계획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 정릉천 일대 문화예술 요소들에 대한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편의시설에 기댄 문화지도를 만드는 내용의 사업을 추가로 더하게 되었다. 천변 산책로 중간지점에 경량철골조의 계단을 설치하고, 정릉천 일대 문화예술 요소들을 담은 문화지도를 제작하여 붙였다. 휴게의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바닥과 벽에 유연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디자인하여 설치하였다. 설치된 계단과 휴게의자를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고민들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으로 기억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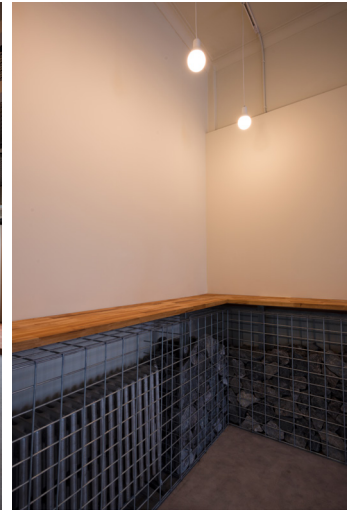


## 경희대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convenient facility of kyeonghee university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용도 집 속의 집 / 중앙도서관 휴게실

주요재료 아연도각파이프 위 우레탄도장  
방갈라이 데크목 위 오일스테인  
익스펜디드메탈 천장틀 위 우레탄도장  
스테인레스 개비온 테이블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이정환



건축의 소멸0 [보안여관]에서 [소록도]를 생각하다

## 전시공간 제작 및 설치

The Extinction of Architecture: Contemplate about Sorokdo from Boanyeogwan

exhibition furniture making and setting up

위치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보안여관  
용도 전시공간벽 및 전시대 제작, 설치

주요재료 라왕 각재목  
라왕합판  
한치각 부속철물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성북도큐멘타 전시 참여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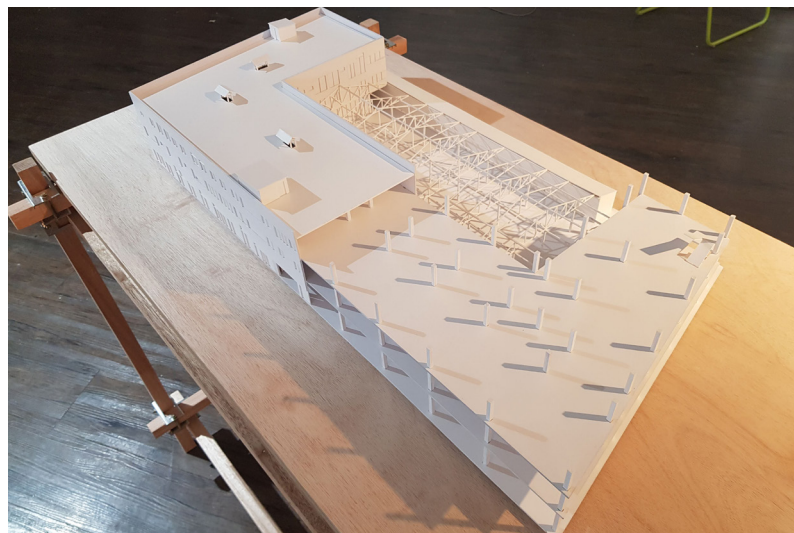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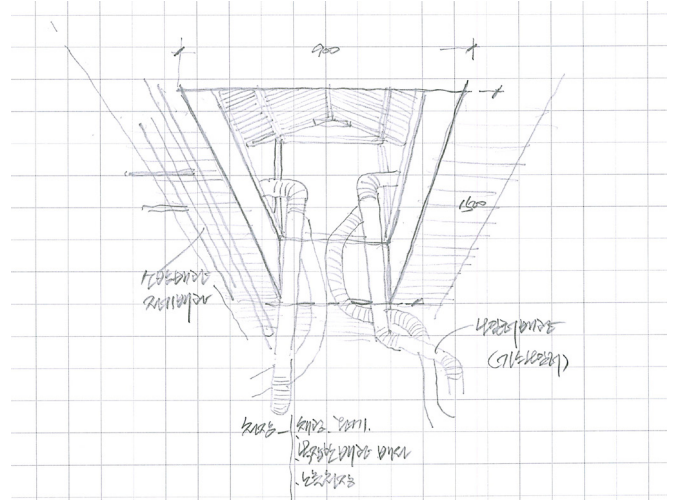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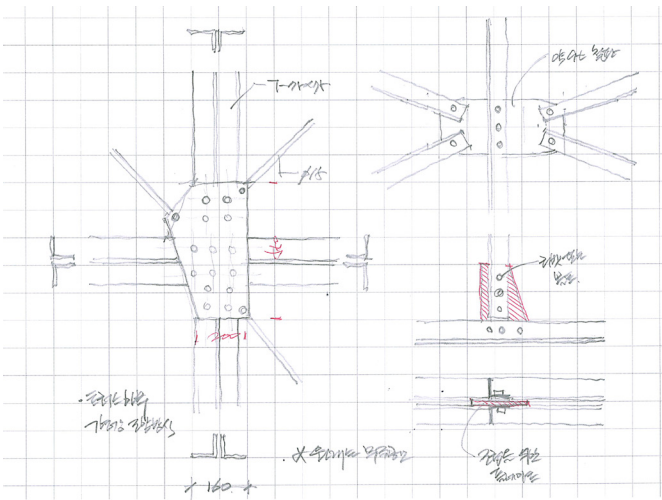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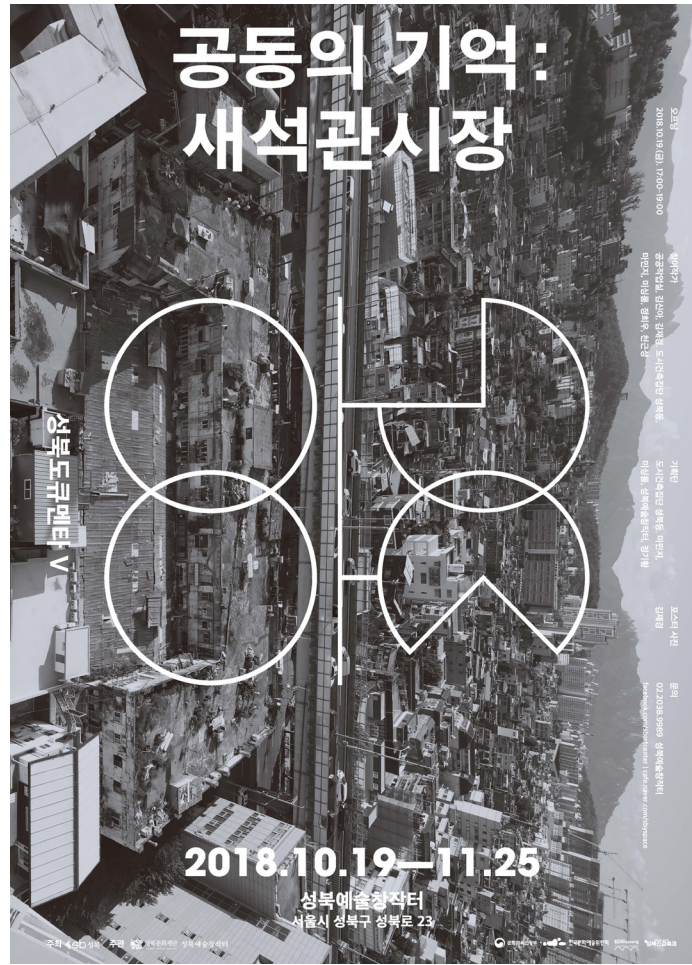
# 공동의 기억: 새석관시장

seongbuk documenta exhibition, participatory artist  
communal memory: saeseokgwan market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성북예술창작터  
내용 새석관시장 실측조사, 도면제작  
1/100 모형제작  
건축적 시선 : 기록도서 전시

주요재료 라왕 각재목  
라왕합판  
한치각 부속철물  
포맥스 PVC 압축판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사진/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 의정부 고산 아이돌봄 클러스터

Uijeongbu Gosan Child Care Cluster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용도 문화공원 내 아이돌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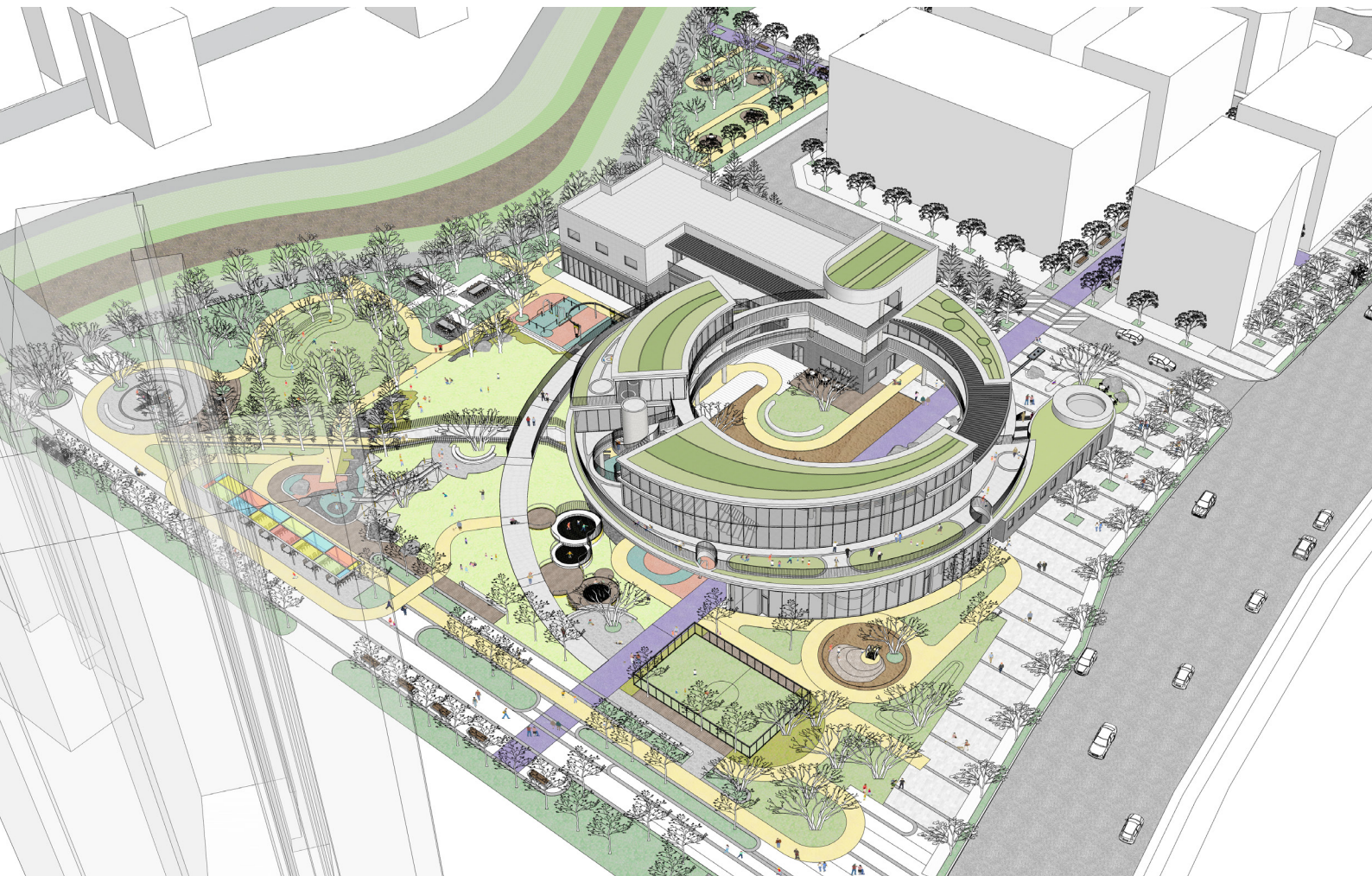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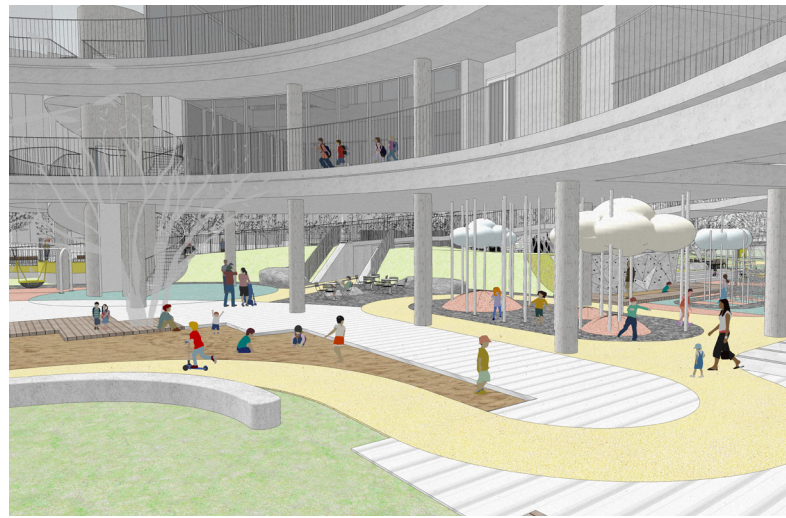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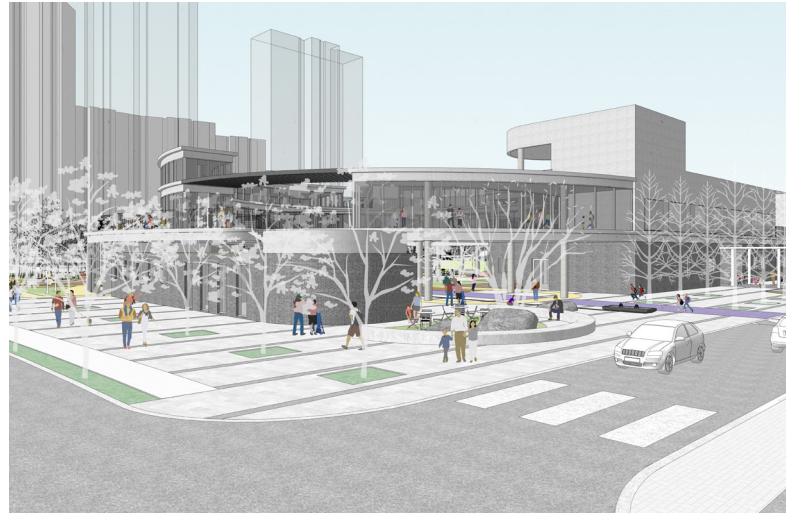
대지면적 12,171.90m<sup>2</sup>  
 건축면적 2,433.54m<sup>2</sup>  
 연면적 4,820.69m<sup>2</sup>

건폐율 19.99%  
 용적률 27.39%

규모 지상3층, 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노출콘크리트, 전벽돌

(3rd prize at competition)

도시건축집단 성북동+구우건축+조경작업소울+101studio



# 서울청년센터 성북오랑

Seoul Youth Center Seongbuk Orang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대지면적 198.00m<sup>2</sup>

건축면적 88.57m<sup>2</sup>

연면적 457.71m<sup>2</sup>

건폐율 44.73%

용적률 231.17%

규모 지상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점토벽돌, 노출콘크리트

(1st prize at competition)



도시건축집단 성북동



# 성북구 삼척수련원

seongbukgu training center at samch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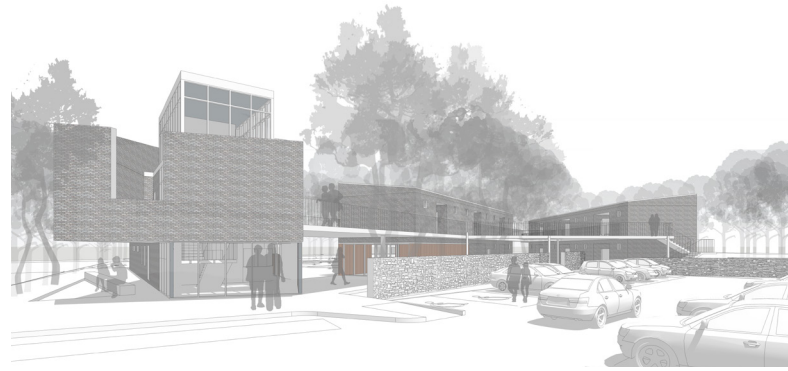
위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4,399m<sup>2</sup>  
 건축면적 873.78m<sup>2</sup>  
 연면적 1,324.98m<sup>2</sup>

건폐율 19.86%  
 용적률 28.02%

규모 지상2층, 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점토벽돌, 목재사이딩

(1st prize at competition)



도시건축집단 성북동+온아건축



# 양양군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

yangyang gisamun harbor new-deal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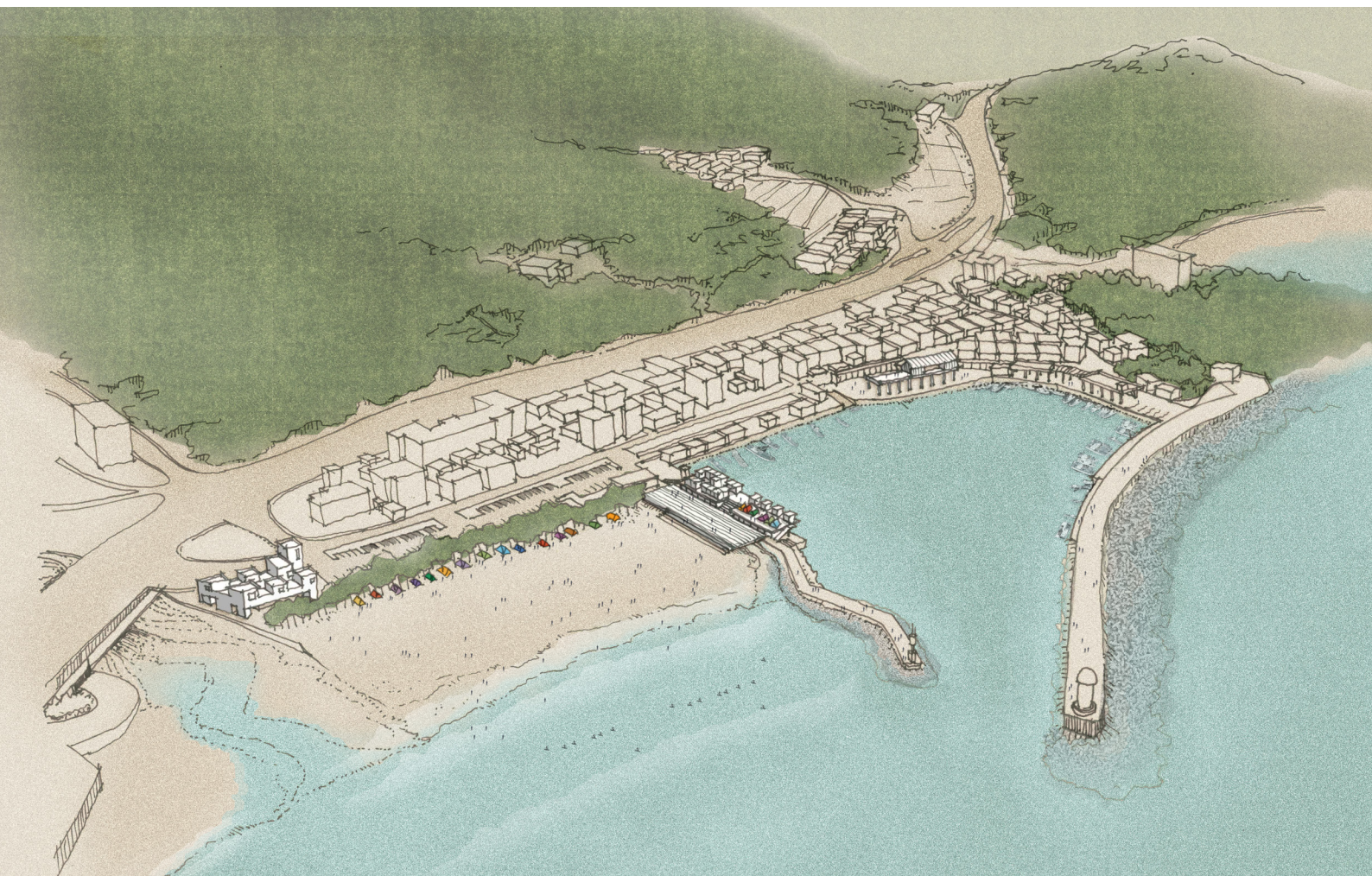
위치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항  
용도 방문자센터, 어촌체험센터, 어촌계사무실

대지면적 2,914m<sup>2</sup> (881.53py)  
연면적 1,055.00m<sup>2</sup> (319.16py)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중골목구조, 경량철골조  
외장재료 노출콘크리트, T-flex, 목재사이딩

(1st prize at competition)

도시건축집단 성복동+studio ubac+SKAi





a/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84

t/ 02-744-1281

f/ 0505-344-1281

e/ [ubac.sb@gmail.com](mailto:ubac.sb@gmail.com)

w/ [ubac.kr](http://ubac.kr)

## 이전 참여프로젝트/ 조성룡도시건축

participating project at johsungyong architect office

### 서울어린이대공원 꿈마루

Kkummaru, Seoul Children's grand park  
/project manager



사진/ 김제경

### 파주출판단지 도서출판세화

Paju bookcity; Sewha publishing company  
/project manager



사진/ 이정환

### 통의동 Viin Collection

Viin collection at Tongui-dong  
/project manager



사진/ 김제경

## 고암 이응노의 집

Goam Lee Ungno memorial hall  
/staff



## 정각사 리모델링

Junggaksa temple remodeling  
/staff



## 지엔아트스페이스

Zien art space  
/staff



## 선유도이야기관 재개관

re-opening of seonyudo park meseum  
/project manager



## 청운동주택

cheongun-dong housing  
/staff



## 천연기념물센터 리모델링

natural monument center remodeling  
/project manager



## 성북동 쌍다리길 정비사업

seongbuk-dong ssangdarigil maintenance project  
/project manager



## 정릉골재개발

jeongneung-gol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anager



## 이화재개발

ewh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anager

